



명예기자직은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 : 200자 원고지 2~4매
◇보낼곳 : 서울 <본사편집실>, 수원 <공과대학 614호>

넘치는 예술욕구, 못미치는 문화 시설 효율적인 공간사용 위해 모두가 노력할때

태초에 인간이 자신이 구한 식량과 가축을 표현하고 춤, 노래 등을 행할때부터, 미술은 개성이 도입되는 이성적 사고를 하기까지, 그리고 현재 이 순간까지도 인간은 예술행위 혹은 문화를 영위하면서 살 수 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

대학이란 공간도 예외일 수 없기에, 오히려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토로하고 행동하며 자신의 가치관을 추스리는 곳이기도 한 문화 행위에 대한 욕구 또한 클 수 밖에 없으리라.

대학내의 연극, 노래, 영화, 서예, 무용 등은 각 단체 혹은 중앙 단위에까지 존재하고 있으며 당장 때 올려도 20여개 이상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그동안 그토록 고민하며 준비해왔던 자신의 존재와 가치관과 혼을 쏟아부어 준비한 공연을 여러 경외인에게 발표할 공간이 문화세계의 창조를 이념으로 하는 본교에 크게 부족한 현실은 얼마나 아리러니

할까!
결단 번지르르하고 무너지는 듯하는 천정과 지저분한 무대라는 구조를 지닌 크라운관, 음대인 만이 독점하는 음대 콘서트홀, 방음이 필요한 A.V센터 지하 그리고 공연장소라고 말하기 어려운 A.V센터 2층과 비좁은 무대의 도서관 시청각실.

공연을 해본다면 누구나 느끼듯 어디 한 군데 출만한 곳도 없고 그나마 공연을 할라치면 00과 실험실, 총화 00층사 등등의 일정에 핏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물론 방송전체, 무대시설, 조명 등이 제대로 갖춰진 공연장의 필요성은 학교측과 학생회 모두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진실로 필요를 느끼는 문화패들이 학우들에게 필요성을 제기하고 인식시키는 것 또한 미흡하다.

그러나 경희대의 문화는 경희인의 것이다. 단지 문화패들만의 소유는 아닌것이다. 진정한 문화세계의 창조를 위한다면 깊이

먼저 내다볼 수 있는 치밀한 계획 아쉬워 — 불편 가중된 지난해 교과목개편

지난해 많은 학우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그리고 많은 시간의 투쟁 속에서 정취(?)한 교과목개편이 이제야 학우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학사행정의 신조 없는 학생들의 지점에서 수많은 학우들이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지난 교과목개편에서 총학생회측과 학교측이 합의한 사항이 많

은 일반학우들에게 불이익의 불씨가 되어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먼저 비근한 예를 들면, 기존에 있던 자연과학개론이 폐강되면서 새로이 대체된 과목이 현대사회와 과학, 현대물리학의 세계, 생물의 세계, 우주와 인간, 환경오염 이상 5개 교과목이다.

당시 총학생회측과 학교측과의 합의사항은 모든 학우들이 (기존에 자연과학개론 수강학생포함) 위의 5개 교과목을 자유로이 수강할 수 있다고 합의한 반면,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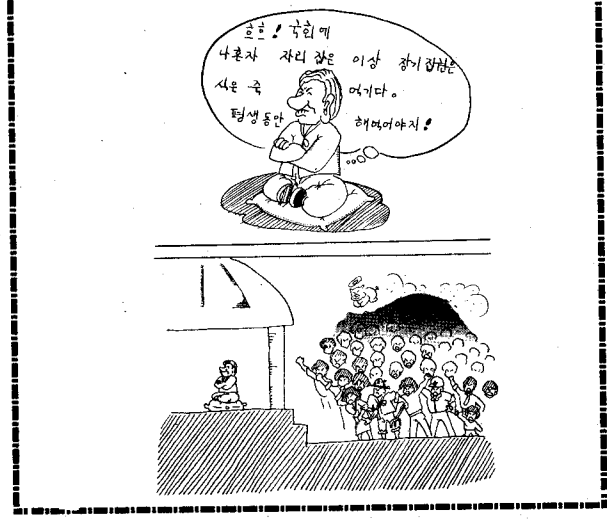
우리는 이 점을 바로 알아야 하는데 불구하고 방과한 대안이 없고, 학교측 자체에서도 이점이 있음을 알았을 때 그 누구라도 학교행정을 나무랄 것이라 하는 것은

생각해야 할 일이다. 다같이 고민해볼 문제이다.

김태훈

<정경대회계 2>

독자만평



이종오 <공문 3 학기 1반 학생>

알림터

<고향골>

약대 '떡잔치'

약대학생회가 약사고시를 준비하는 4학년들을 위해 '떡잔치'를 한다. 오후 5시 101강의실에서 풍물패의 무당과 마당놀이 등의 다채로운 행사준비도 되었으며 참가비는 무료라고.

화학과·경제사회학 하루차집

화학학과는 화학활성화와 도시기반시설을 위해 오늘 하루차집을 연다.

장소는 경희컨트리이며 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8시까지.

또한 붓글씨 동아리 경희서도회도 오는 26일 하루차집을 연다. 11월의 정기세전 기금마련을 위해 90학번 주회로 열리며 장소는 오토라.

신방과 정기총회

신방방송학과학생회는 오는 25

일 오후3시30분 정기총회를 갖는다.

상반기사업평가, 하반기사업계획, 교내외사업보고 등이 안건이며 장소는 정경대 111강의실.

고향문화회 회원모집

고향문화회가 89, 90학번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한다. 오는 30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장소는 학생회관 6층 동아리방.

경동고 동문회 체육대회

각대학 동문이 참가하는 경동고 동문회가 다음달 9일 경동고에서 열린다.

체육대회등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재경회 동문이 꼭 우승해 푸짐한 상품을 타자고 경제와 학생이 역할.

알림터는 학과와 동아리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독자여러분이 꾸미는 란입니다.

<서천골>

'철학사랑' 회원모집

철학연구회 '철학사랑'이 사회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입회원 모집한다. 사회대 학생회실에서 접수를 받으며 기간은 천지가 마를때까지라고.

크리스찬연합회 영화상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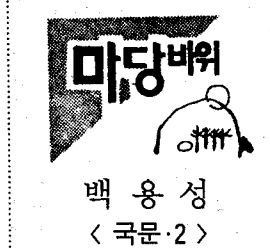
경희 크리스찬 연합회가 오는 27일 오후6시40분 공대시각강의실에서 영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상영한다. 90분간 상영되는 영화의 수익금 전액이 수재의연금으로 기탁되며 입장료는 500원.

레크레이션 회원모집

체육학과대학생회는 레크레이션 2급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강습을 실시한다. 교육계임지도, 프로그램작성 등의 순서로 다음달 13일부터 토요일 5주간 진행되며 이에대한 회원은 오는 28일까지 접수받는다.

급격히 증가한 학내 대자보를 보며

요즈음 학내 대자보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그간의 대자보가 정치적인 폭로자제에 대한 배설되었던 것에서 이번의 대자보의 내용들은 바로 그 정치적 배설이 학생회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백용성 <국문 2>

어떻게 실현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기에 그 의의는 실로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고르바초프가 글라노스트(공개)를 했을때 소련은 전국 곳곳에서 무언가 부산함이 일기 시작했다.

스탈린주의자, 관료주의자 그간의 몰려 왔던 정보까지도 떠올랐으며 민중 스스로도 여러 민주주의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전 고르바초

프의 위대함일까? 아니면 민중의 임팩트일까? 어쩌든 지금 소련은 그 이후 민주주의에 대해 실천양태를 하고 있다. 그만큼 변화 또한 엄청났다.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수많은

즉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총학생회의 입장은 왜 그러냐? 또는 거꾸로...

공공투쟁은 어떻게 야권통합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우리의 실천양태를 하고 있는 것일까? 또는 거꾸로...

열띤 논쟁의 장

대자보앞에 서 있는 학우들 모습은 신문을 사기 위해 줄을 선 소련의 시민들을 떠올리게 한다

은 논쟁들이 바로 그 엄청난 대변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자보앞에 부산한 서 있는 학우들의 눈빛은 소련에서 이른바 신문을 사기위해 줄을 선 시민들과 비슷한 점이 있다. 선 길 갈 수 없다. 요즘 한창 계시판의 백백하게 붙여진 대자보들의 홍수현상을 보기도 한다. 부정적이지 않느냐

가질 수 밖에 없는 내용인 듯하다.

고르바초프는 '보다 많은 민주주의, 보다 많은 사회주의'란 슬로건을 들었다. 지금의 대자보의 내용들은 이러한 '보다 많은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대자보의 홍수현상을 보기도 한다. 부정적이지 않느냐

난 것 같다. 특히 어차피 같은 학생회 자체조직에 있는 학우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기에 학우들 스스로에 의해 편향적인 것은 거부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스탈린의 관료적인 정책실행의 방식은 적어도 이러한 부분에서는 교훈적인 것 같다. 다시 돌아와서 '보다 많은 민주주의'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를 살펴 보자. 대자보문화는 현재 비교되는 거의 유일한 기준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물론 집회문화나 축제문화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글에서는 생략하도록 하자.)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할때 필자는 대자보의 내용에 있어서 훨씬 멀리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대자보를 쓰면서 의견을 개진하고 주제를 짚어서 대자보에서 다루는 내용에 있어서 (특정정책의 의견이나 몇사람의 의견개진이나) 광범위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대자보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보편적의 한계를 말하고,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라고 허울 좋게 이야기하는 현정권의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사회를 준비해가, 가려하고 하는 학생회에게 우리는 민주주의의 여러 통로중 하나인 대자보의 올바른 문화를 시급히 건설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발전에 역행하는 짐스런 존재

9월주제 '주한미군'

미군!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있어 이 단어에 함축된 상징성은 미담과 돈 돈 함이었다.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고, 북한 공산집단의 남침으로부터 지켜주었다. 우리가 자유민주 사회를 표방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었으며, 식량과 물자가 부족할때 우리에게 많은 원조를 해 준 그런 사람들, 한마디로 자상하고 친근한 얼굴들이 우리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미군의 이미지였다.

이러한 일방적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생각할 수 있는 있다면 그는 북에 동조하는 빨간 물든 사람, 애국심도 반공열정도 국가관도 없는 차별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취급될 뿐이었다.

미국 조야에서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논쟁이 벌어지면 모든 국민이 불안해하고, 철수 감축을 주장하는 미국인은 뭇물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으로 여겨졌고 미워보이던 그런 것이 우리들의 그 당시 모습이었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스스로 미군

을 미워하는 사람이나 계속주둔 문제들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벌이고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었다. 미군은 언젠가 이 땅을 떠날 것이다. 시기와 방법이 문제이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종전 50년 여지금이거나 변함없이 주한미군 그대로일 뿐인 미군의 존재보다도, 어떤 정치 사회적 문제들을 집단적으로 인식 평가할 수 있는가, 여론중 보이고 있는 유력 가치체계의 확립적 실태에 대한 문제, 초월적 성격과 관련된 문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절대적 가치를 갖는 윤리적 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가, 정신도 물에나 통될 수 있는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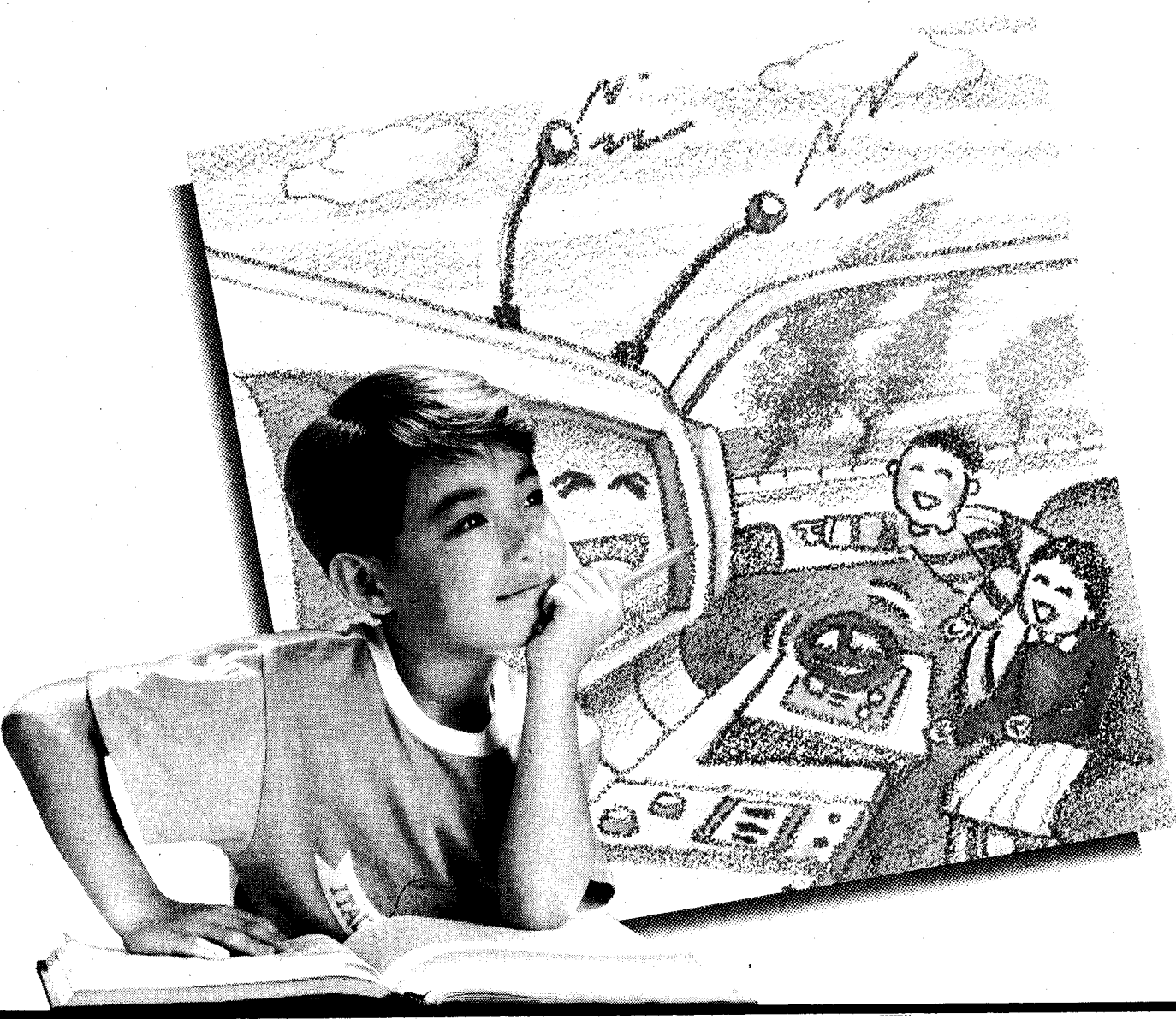
백승현 <정경대교수 정치철학>

패권속셈을 숨기고 원조자의 모습으로 이땅에 들어온 미군

죽의 자주적 통일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요, 우리를 핵전쟁의 불안에 떨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외곽에 일조를 하는 짐스런 존재, 뱀이 땅을 떠나야 할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80년대 이후의 특징이다.

이제는 젊은층이나 지식인층에서 이러한 새로운 관점을 공

작은 꿈들이 모여 힘있는 나라를 만듭니다. ⑤



“삼촌! ‘키트’ 처럼 혼자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요.”

그때, 아주 근사한 생각이구나. 지루한 컴퓨터를 좋아하거나 컴퓨터에 관한 연구를 계속해 간다면 스스로 생각하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가능할거야.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인공지능컴퓨터에 관한 연구가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거든.

자동차에 이것을 활용하면 Z카 '키트' 처럼 말하고 움직이는 자동차도 만들 수 있지. 보던 하나만 놀려주면, 차 스스로 판단해서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그런 자동차 말이야!

그 꿈을 계속 지켜가면, 자존이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들면 몸이 불편한 장애인, 운전이 힘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든 사람들이 정말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단다.

언젠가 슈퍼마차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었지? “자동차를 위해 좋은 일을 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면 세상은 정말 편리하고 좋은 곳이 될거야.”

D대 전기공학과 2년 차 이양희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나라의 미래는 밝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작은 소중히 생각합니다.

HMD 現代自動車